

2023. 6. 13.(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6월 1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 | | |
|--------|-----|-----------|
| 안전지원과장 | 안형준 | 2133-8515 |
| 안전지원팀장 | 황성원 | 2133-8517 |
| 담 당 자 | 이석중 | 2133-8519 |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10매

올해부터 '체감온도' 기준 폭염특보 발령...서울시, 폭염대응체계 강화

- 5.20~9.30까지 폭염대책 기간... 「2023 서울시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 추진
- 평년에 비해 기온↑, 폭염특보 발령 기준 바뀌는 등 폭염 상황관리 철저 필요
- 폭염 대응체계 강화, 취약계층 보호, 폭염저감시설 확충 등 강화된 폭염대책마련
- 4,200개소 무더위쉼터 운영, 노숙인 무더위쉼터(10개소)는 24시간 상시 운영
- 쪽방 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 위해 3천여명 돌봄인력 활동, 야외근로자 보호 강화

같은 기온에도 습도나 바람에 따라 느껴지는 더위는 다르다. 그동안 기온을 기준으로 발령되었던 폭염특보가 앞으로는 단순기온에서 습도까지 고려한 '체감온도' 기준으로 발령된다.

○ 체감온도 :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

※ 습도 10% 증가 시마다 체감온도 1도 가량 증가

○ 기상청에 따르면(5.23 발표) 서울의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18~'22년) 폭염일수 및 열대야 일수도 증가하는 등 폭염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차 커지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시는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무더위쉼터 4,200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이중 노숙인 무더위쉼터 10개소는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쪽방촌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냉방비 지원도 검토 중에 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3,000여명의 돌봄인력이 활동한다.
- 또한 야외근로자 보호를 위해 일 2회 이상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등을 작성하게 하고, 폭염 영향 예보제를 실시하는 등 야외노동자 보호에도 힘쓴다.
- 올해 이른 무더위로 인해 횡단보도 그늘막 3,176개소와 쿨링포그, 그늘막 등이 설치를 완료했으며, 도로 노면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쿨링로드도 가동되고 있다. 물안개 분사장치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까지 폭염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 시는 폭염대책 기간(5.20~9.30) 동안 상황관리 T/F팀 운영 및 상시 대비체계를 유지한다. 폭염특보에 따른 주의·경계 단계에는 생활

지원반과 에너지복구반을 추가해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대책을 강화, 심각 단계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 시는 이와 같은 강화된 폭염대책을 마련, ▲폭염대응체계 강화 ▲취약계층 보호 ▲취약시설 안전관리 ▲폭염저감대책 등 「2023 여름철 폭염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기 전인 5월 20일부터 폭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상시 대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① 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실시간 정보제공 등 상황대응체계 강화>

- 우선 폭염에 의한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64개소(응급의료기관 50개, 응급실 운영기관 14개)와 서울시 및 자치구 보건소 등 26개소에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 폭염특보 발효 시 119순회 구급대(구급차 161대/대원 1,506명)를 운영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온열질환 신고 시 응급의료 상담 및 구급차 현장 도착 전 초기 응급처치 방법 안내·지도한다.
- 위기상황 발생 시 실시간 정보제공을 위해 폭염 시민행동요령 영상을 12,790면의 영상매체에 표출하고, 서울안전누리(앱) 및 블로그·사회관계망(SNS) 등을 활용하여 폭염 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②무더위쉼터 확대, 야외근로자 자가진단 실시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강화>

-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무더위쉼터(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야외쉼터 등) 4,200개소를 지정·운영한다. 폭염대책 기간(5.20.~9.30.) 중 상시 일반쉼터(평일 9시~18시)가 운영되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연장쉼터(평일 18~21시, 휴일 9시~21시)와 야간쉼터(평일·휴일 21시 ~ 다음날 7시)가 연계 운영된다.

-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 36,910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쪽방주민 보호대책으로 10개조 20명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의 1일 2회 순찰과 쪽방간호사 1일 1회 이상 방문간호를 실시한다.

- 또한 서울역 등 주요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흑서기 응급구호반(51개조 120명)이 1일 4회 순찰·상담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노숙인 무더위쉼터 10개소(동시 최대 597명 이용 가능)를 24시간 운영한다.

-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폭염에 취약한 최종증 독거 장애인(200명) 대상의 24시간 여름철 돌봄서비스 및 중증 재가 장애인(24,000명)에 대한 상시 안전 확인 등을 실시하고, 전기료 체납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4인 162만원) 및 온열질환 의료비(최대 100만원)를 지원한다.

- 폭염에 취약한 야외노동자 보호대책도 마련한다. 시 발주공사장 야외근로자 대상으로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및 자각증상 점검표를 일 2회 이상 작성·관리하고, 폭염특보에 따른 폭염 영향 예보제(관심·주의·경고·위험)를 실시해 상황별 노동자 안전 및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또 관내 공공·민간 건설공사장 2,000여개소에 폭염 대비 준비사항, 폭염특보 시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부터 야외노동자를 보호한다.

<③ 물, 전력 사용량 증가 대비 기전설비 등 폭염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 여름철 물 사용량 증가에 대비해 폭염특보 시 취·정수장 기전 설비를 점검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비상 급수 동원 자원(급수차 111대, 병물 아리수 15만병, 비상 물탱크 및 이동식 급수팩 30개 등)을 운영한다.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 14개소, 노숙인 시설 10개소 등에는 병물 아리수 약 8만병을 지원한다.
- 여름철 전력 사용 급증에 대비해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전력수급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예비전력 4.5GW 이하 시 전력수급 위기단계별 상황대응을 실시한다.
- 가스·유류 등 폭염 취약시설물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 유관기관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주유취급업소 529개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체류 여부 등 확인 및 안전관리 안내문을 배부한다.

<④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 및 물순환시설 확충 등 폭염저감대책 추진>

- 현재 횡단보도 그늘막 3,176개소를 포함해 쿨링포그, 그늘막 등 총 4,355개소의 폭염 저감시설을 운영 중이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 되는 7월까지 222개소를 추가 설치해 4,577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 또, 폭염특보 시 도심 열섬화 완화를 위해 지하철 유출지하수를 이용한 쿨링로드(시청역, 종로3가역, 발산역, 장한평역 등 총 13개소, 3.5km)를 확대 운영하고, 주요간선도로 및 일반도로 1,973km에 물청소차 160대를 투입하여 최고기온 시간대(10~16시) 물청소를 강화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폭염완화의 근본적인 대책인 물순환시설(10개소) 및 도심녹화 확충(252,035 m^2)사업도 추진한다.

-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은 이제 심각한 재난이 되었으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 특히 폭염의 가장 큰 피해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야외노동자 등으로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올여름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강화된 폭염대책을 추진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여름철 폭염대비 행동요령

2. 서울시 폭염 위기경보 판단기준 및 구성체계도

□ 한국어

국민행동요령
폭염

행정안전부

Panel 1: A man sits in front of a TV showing a weather map of Korea with orange and red areas. Text: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Panel 2: A man drinks water from a bottle. Icons of a coffee cup and a fast-food cup are crossed out. Text: 술이나 카페인 등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십니다.

Panel 3: A man sits in a chair with a clock icon showing 2 PM to 5 PM. Text: 가장 더운 오후 2시~오후 5시에는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Panel 4: A man sits in front of a window with a thermometer icon showing 26-28°C. Text: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C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합니다. ※ 적정 실내 냉방온도 : 26~28°C

Panel 5: A man looks distressed in front of a building labeled '무더위 쉼터 (COOLING CENTER)'. Text: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장소를 이용합니다.

Panel 6: A man stands in front of a cooling station with mist. Text: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춥니다.

□ 영어

Emergency Response Guidelines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eat Wave



Check weather conditions as often as possible on TV, the Internet, radio, etc.



Drink plenty of water rather than drinks that contain alcohol or caffeine.



Do not do outdoor activities or work between 2:00 p.m. and 5:00 p.m., the hottest time of the day.



Keep temperature difference in indoor and outdoor air around 5 °C when using an air-conditioner to prevent air-conditioningitis.
※ 적정 실내 냉방온도 : 26 ~ 28 °C



Use cool places such as a cooling center if having mild symptoms such as dizziness, nausea, and a headache.



Ventilate or sprinkle water on stables, greenhouses, etc. to lower the temper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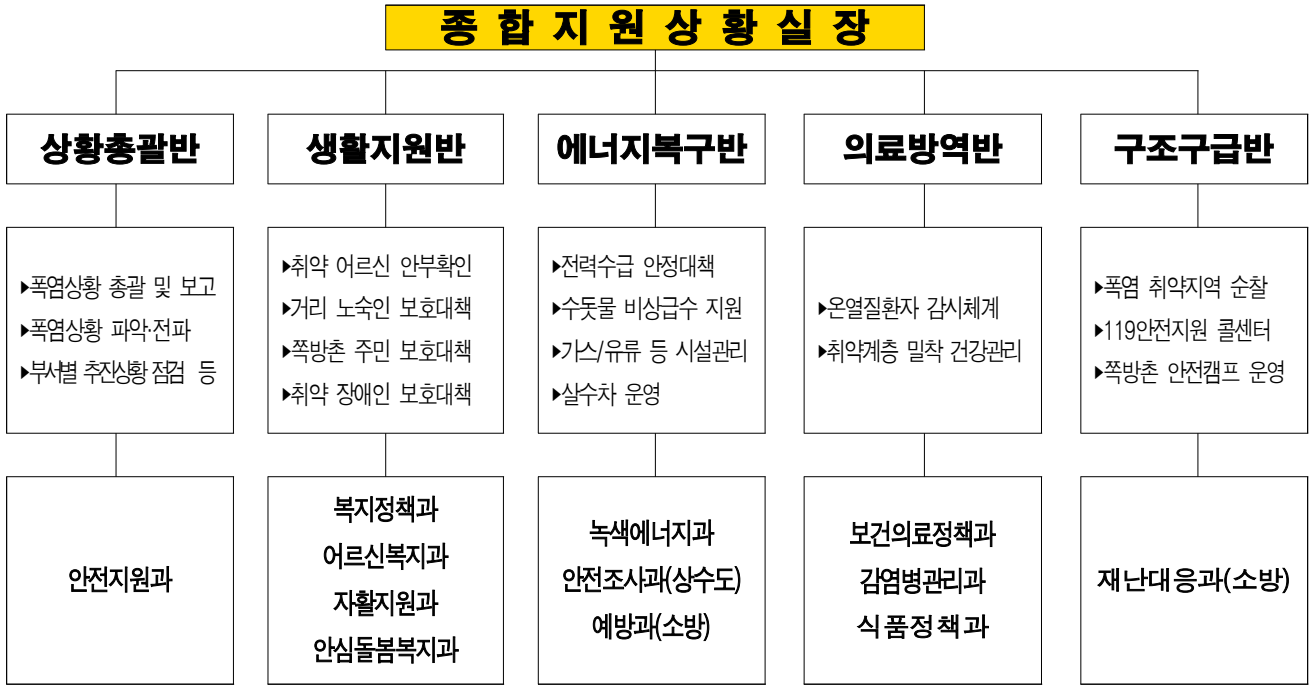
[위기경보 판단기준]

| 구 분 | 판 단 기 준 | 주요활동 | 대응단계 | 근무인원 |
|------------------------|--|-------------------------|-------|------------------------|
| 관심 (Blue) | ▶ 폭염대책기간 (5.20.~9.30.) | 징후 감시활동 | 상시대비 | TF팀 운영 (3개팀 17명) |
| 주의 (Yellow) | <p>[폭염주의보]</p> <p>▶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 2일 이상 지속 예상</p> <p>▶ 급격한 온도상승 및 폭염장기화 등으로 중대피해 발생 예상</p> | 대비계획 점검 및 폭염 모니터링 | 대응1단계 | 종합지원상황실 (5개반 7명) |
| 경계 (Orange) | <p>[폭염경보]</p> <p>▶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 2일 이상 지속 예상</p> <p>▶ 급격한 온도상승 및 폭염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 예상</p> | 대비계획 점검 및 폭염 모니터링 | 대응2단계 | 종합지원상황실 (7개반 9명) |
| 심각 (Red) | ▶ 폭염특보 지속되고, 대규모 피해 발생이 우려 되는 경우 | 즉각 대응 태세 돌입 | 대응3단계 |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반 39명) |

※ 위 기준은 재난경보 발령을 위한 기준 제시이며, 실제 경보발령은 상황의 전개속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회의)'에서 결정함.

[위기 단계별 구성체계도]

○ 주의·대응1단계 : 종합지원상황실 운영 (5개반 7명)



○ 경계·대응2단계 : 종합지원상황실 운영 (7개반 9명)



○ 심각·대응3단계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3개반 39명)